

병조판서 율곡

경세가로서 율곡을 거론할 적에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10만 양병설이다. 그러나 10만 양병설의 진위는 아직도 가려지지 않았다. <선조실록>에는 10만 양병설이 나오지 않는데, <선조수정실록> 16권 선조 15년(1582) 9월 1일자 기록에 율곡이 경연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내용이 나온다. 김장생이 지은 <율곡행장>의 내용을 토대로 사관이 실록에 기록한 내용이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는 그해 12월, 선조는 율곡을 병조판서에 임명한다. 병조판서는 국방을 책임지는 자리로, 율곡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국방 정책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계미년(선조 16년) 정월에 병조판서 이이가 병으로 누웠다가 출사하여 사직하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국가의 병력이 진실로 전조(前朝)에 미치지 못하는데 나라가 태평한 지 백 년이니, 병정(兵政)이 폐해진 것이 오래되었다. 내 일찍부터 속으로 근심하면서도 사람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경이 개혁하고 기강을 바로잡고자 전후로 부지런하니, 이제 능히 기특한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모든 폐단을 개혁하여 양병(養兵)의 규모를 만든다면 국가의 다행이 될 것이다.” 하였다.

선조가 율곡을 병조판서에 임명한 이유는 율곡의 의지와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연려실기술>의 이 기록은 <계미기사(癸未記事)>를 인용하였다. <계미유사>는 선조 16년 계미년(1583)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시정(時政)을 기록한 책으로 율곡을 중심으로 동서당론에 관계된 기사를 뽑아 편찬한 책이다. 바로 이때가 율곡이 병조판서를 맡고 있었던 해이다.

당시 선조 16년(1583)에 북쪽 국경지역에서 호인(胡人)들의 소요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2월에는 이탕개(尼蕩介)가 침입하여 경원부(慶源府)가 함락되기도 했고, 여름 무렵에는 호인들이 종성(鐘城)을 포위하여 국경에서 급보가 날아오기도 했다.

2월에 이탕개가 침입하여 경원부가 함락되자, 경기(京畿) 이하 5도에 명하여 군사를 징발해서 북쪽으로 나가게 했다. 그런데 당시는 전쟁을 모르고 지낸지 오래되어서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자, 동리에 우는 소리가 서로 들릴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때 율곡이 “자원하여 육진 수비에 나가 만 3년 동안 복무하는 자는 서얼이라도 과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고 공사(公私)의 천민들은 양민으로 올려주소서.” 하고 청했지만 양사(兩司)가 거행하지 말도록 청하니 이를 따랐다고 한다. 율곡의 계책이 시행되지 못했다.

여름에 다시 호인들이 오래도록 종성(鐘城)을 포위하여 국경에서 날로 급하다는 보고가 전

달되었다. 이에 도성 5부(部) 각 방(坊)의 향도(香徒) 중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게 하였다. 그런데 사수(射手)는 징발하였지만 관청에 전마(戰馬)가 없어서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었다.

울곡은 앞서 을묘년에 군사들이 말을 약탈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런 일로 난을 일으킬까 깊이 근심하여, 뽑힌 사람들 중에 늙고 약한 이들을 모아 원하는 대로 말을 헌납하여 출전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였는데 여기에 응모할 사람의 유무를 알 수 없어 먼저 영을 내려 모집하였다. 이에 말을 헌납하는 자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는데 군사들은 갈 길이 급하여 기한을 늦출 수 없으므로 한편 아뢰며 한편 말을 나누어 주게 하니 선조가 곧 윤허하였다.

울곡은 전마 헌납과 관련하여 선조치 후보고의 방식을 택했는데, 이를 두고 군정의 중한 일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야 아뢴 것은 병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임금을 업신여긴 죄가 현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울곡행장>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자는 말을 얻어서 다행으로 여기고, 남아있는 자는 전쟁에 가는 일을 면하였다고 기뻐하니, 공사간에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시배(時輩)의 의논은 권력을 마음대로 부린다고 지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울곡행장>에서 시배들의 의론이라고 명명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연려실기술>은 <울곡행장>에 기록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부제학 권덕여와 직제학 허봉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병조 판서 이이가 글자나 아는 것으로 출세하여 관계(官階)를 뛰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여 인정을 거슬렀으니 공론(公論)이 일어나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요즈음의 일로 말씀드리자면, 크건 작건 아뢴 후에 명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인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궁궐에서 말을 헌납하라는 명을 자기가 내려 먼저 시행하여 놓고 나중에 아뢰었으니, 이것은 국가의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입하고 있었으며 중한 병에 들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전하의 부르심에 대하여 교만스럽게도 몸소 내병조에 까지 이르렀다가 정원(政院)에 나아가 명령을 받지 않았으니, 이것은 군부(君父)를 업신여긴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간에서 파직을 청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판의 요지는 전횡과 불경죄로 압축되어 있다. 임금에게 아뢰지 않고 임의로 명령을 내린 것이 전횡에 해당하고 울곡이 선조의 부름을 받고 가던 중 갑자기 일어난 현기증으로 선조를 알현하지 않은 것이 불경죄에 해당한다.

물론 이에 대해 선조의 하교는 여전히 울곡을 두둔하였다.

상이 수교(手敎)로 대신에게 내리기를, “요사이 이이가 내용으로 대간이 서로 격하여 이이를 나라를 그르칠 소인에게 비하기까지 하니,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대개 이이가 전부터 신진(新進)들을 제재하고 그들이 시세를 따라 편당에 붙는 것을 미워하여 여러 번 진계하여 논박하다가 시론(時論)에 미움을 받은 지가 오래이다. 마침내 이이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틈을 타고 흠을 만들어 반드시 이이를 탄핵하여 제거하고자 말려 하는 것이다. 무릇 공경

대부 중에 소명(召命)을 받고서 오지 않은 자가 많았지만, 임금을 업신여겼다는 것으로 논란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어찌 대간은 이이에게만 바른 말을 하는 것인가. 말(馬)을 헌납시키는 일을 나에게 묻지 않은 것도 허다한 사무(事務) 중에 미처 하지 못한 데에 불과한 것이다. 대저 권세를 마음대로 하고 임금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신하의 극죄(極罪)인데, 어찌하여 그 죄를 밝히고 바로잡아 국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이내 감히 파직시킬 것만을 청하여, 명종(明宗) 을사년에 간신들이 윤임 등을 반역으로 지목하면서 처음에는 체임(遞任)과 파직만으로 죄를 준 경우와 같게 하는가. 대간은 공론을 맡고 있으니, 속으로 자기와 뜻이 다르다 하여 배척하고 모함하려는 계획을 하는 것이 어찌 대간의 도리에 있다 하겠는가. 착함과 사특함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에 달려 있으니, 경들은 어물어물하며 분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저 조정 신하들이 편당을 지어 나랏일이 날로 내쳐는데 대신이 분별하지 못하니, 장차 나랏일을 어느 지경에 이르게 하는가.” 하였다.

선조의 마음은 여전히 율곡에 있었고 당시 율곡을 비판하는 의론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꿰뚫고 있었다. 그러나 비난이 여전히 비등하자 그해 6월에 병조판서에서 체직하였다. 그 후 9월에 율곡을 다시 불러 이조판서를 맡기는데, 그 다음해 선조 17년 정월에 율곡은 자택에서 영면한다.

율곡이 병조판서의 소임을 잘했다는 평가는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북방 변고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제안하거나 실시했던 전마 헌납과 서얼 허통이 시행되지 않거나 거센 비판에 봉착한 데서도 드러난다. 물론 율곡이 병조판서를 맡은 기간은 선조 15년 12월부터 16년 6월까지로 기간이 짧고, 율곡이 선조 17년 정월에 작고한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병조판서의 직임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

<괘일록>의 이 글은 율곡이 병조판서로서 행한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사료된다. <괘일록>은 윤원형의 사위인 이조년이 편찬한 글이다. 그는 윤원형이 실각한 후에 관직에 나가지 않고 독서로 여생을 보냈다.

이때 북호(北胡)가 난을 일으켜서 조정과 민간이 불안해하자, 참찬(參贊) 정언신(鄭彦信)이 순찰사(巡察使)가 되어 출정하였다. 이이가 군사를 조달하고 양식을 운반하여 그 책임을 전담하였는데, 뜻은 크고 재주는 영성하여 새로 실시하는 일 중에 되는 것이 없었다. 전마(戰馬)를 납입하고, 양곡을 철령(鐵嶺)에 운반하는 이들 중 서얼들에게 허통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삼사(三司)가 번갈아 글을 올려 그 불가함을 논란하니, 그 차자의 내용에 과격한 것이 많았고 또 인정에 가깝지 않는 말도 있었다. 이에 이이가 차자를 올려서 스스로 해명하고 삼사를 들추고 비난하여 공론을 격동시키자, 공론이 분발하여 여지없이 공격하니 이이가 사직하고 교외로 나갔다.